

이제는 해양시대!

중국 해양경제, 산업·기술·관광 날개 달고 승승장구

우리 나라 해양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 해양 신흥산업 날이 활력 더해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자연자원부가 발표한 <2025 중국 해양경제 발전 지수>에 따르면 중국 해양경제 구조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지수는 131.0으로 전년 대비 1.8% 올랐다. 해양산업 구조가 한층 최적화되고 과학기술혁신 능력이 꾸준히 향상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해양 신흥산업 부가가치가 지난해 동기 대비 7.2% 증가함과 아울러 해양경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해양 관련 기업의 기업공개(IPO) 융자 규모는 114억원으로 전체의 17.0%를 점하며 활력을 보였다.

자연자원부 통계를 보면 중국은 올 1분기 해양 석유·가스, 해상풍력 등 신행 해상 장비 제조 분야에서 새로운 진전을 보였다. 해양 약물 및 바이오 제품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일례로 면역항암제 신약인 베타글루칸(BG136)이 임상 2기 테스트에 들어갔다. 상해교통대학, 중국과학원, 화대(华大) 그룹 등이 원핵미생물 유전자(DNA)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7,564종의 대표 유전체를 검증, 이중



5월 1일, 천진국제크루즈모항에 정박해있는 크루즈선. / 신화넷

89.4%가 아직 보고되지 않은 신종이였다.

◇ 심해 과학기술 성과 ‘속속’

국가해양종합시험장(심해)이 지난 8일 가동에 들어갔다. 감천(甘泉) 해저대지 서북부에 위치한 심해시험장 해상고정시험구는 면적이 약 400평방 킬로미터, 수심은 약 1,300~1,500미터에 달한다. 심해시험장은 심해 장비 기술 연구개발, 테스트, 성과 전환, 제품 인큐베이팅(孵化) 등이 일체화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3개월간의 업무화 시운행을 거쳐 정식 가동을

준비중이다. 9일부터 열린 유엔(UN) 해양총회 기간 중국은 세계 최초의 심해 해산 디지털화 스마트 시스템을 공개했다. 중국대양사무관리국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심해 분야의 인공지능(AI) 기술 응용 공백을 메울 것이라며 심해기술의 스마트화 시대를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 뜨거워지는 해양관광 열기

여름에 접어들면서 해양관광 성수기가 시작됐다. <2025 중국 해양경제 발전지수>

에 따르면 민생 보장 및 개선 지수는 125.7로 전년 대비 1.9% 올랐다. 해양관광시장이 갈수록 활기를 띠면서 연해도시를 찾는 국내 관광객수가 지난해보다 14% 늘었다.

자연자원부가 발표한 <중국 해양경제 통계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해양관광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9.2% 확대된 1조 6,135억원을 기록했다. 정책적 호재와 소비 회복의 영향으로 해양관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크루즈관광(邮轮旅游)도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로열캐리비안크루즈(皇家加勒比国际邮轮公司)는 상해, 항항을 모항으로 중국 시장 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루즈 휴가(邮轮度假)는 이미 장강삼각주, 월항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승객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았다. 내륙지역 주민들도 고속철도와 항공 네트워크에 힘입어 ‘크루즈 + 고속철도’, ‘크루즈 + 비행기’ 연계를 통해 바로 ‘크루즈 + 도시 휴가’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로열캐리비안크루즈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무비자 국가 범위를 확대하고 무비자 경유 정책을 전면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오션스팩트럼호’(海洋光谱号)를 리용해 중국 관광에 나선 외국인 여행객이 2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화넷

도시 재생 지원 확대... 20 개 도시 추가



2024년 3월 15일, 상해시 정안(静安)구 도시 재생 프로젝트 건설현장. / 신화넷

총지원액 200 억원 이상

일선 재정부 경제건설사(司),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도시건설사는 <2025년도 중앙재정 도시재생사업 선정 결과 공시>를 발표했다. 선정 결과 북경, 천진, 당산, 포두, 대련, 할빈, 소주, 온주, 무호, 하문, 제남, 정주, 의창, 장사, 광주, 해구, 의빈, 란주, 서녕, 우룸치 등 20개 도시가 선정됐다.

앞으로 몇년간 중앙재정은 총 2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지원 도시의 취약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메커니즘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지(中指) 연구원 연구총감 오

건홍(吴建钦)은 “지난해부터 중앙재정은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도시재생사업 시행 도시에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도 해당 지원 정책이 이어지면서 도시 재생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의지가 여분이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재정부 판공청과 주택도시농촌건설부 판공청이 발표한 <2025년도 중앙재정 지원 도시재생사업 시행 관련 통지>에 따르면 동부지역 도시는 최대 8억원, 중부 지역 도시는 최대 10억원, 서부지역 및 직할시 도시는 최대 1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보조금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매년 분할 지급된다. / 신화넷

발해 해역 최대 석유가스 플랫폼 ‘플로트 오버’ 설치 완료



메인 작업선 ‘해양석유 228’호가 간리 10-2 유전군 개발 프로젝트(1기) 중앙 처리 플랫폼을 싣고 작업 현장에 도착했다.

원유 매장량 1 억톤 넘어

발해 해역에 사상 최대 규모 및 중량의 해상 석유가스 플랫폼이 설치됐다.

천진시해양석유공정회사는 8일 간리(垦利) 10-2 유전군(群) 개발 프로젝트(1기)의 중앙 처리 플랫폼에 대한 ‘플로트 오버’ 설치(浮托安装)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중앙 처리 플랫폼은 생산과 생활 기능이 통합된 3층 규모의 다기능 해양 플랫폼으로 높이 22.8미터, 설계 중량은 2만톤 이상에 달한다.

설치 과정에 메인 작업선 ‘해양석유 228’호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탑재된 북두위성항법 시스템 3세트를 설치하여 ‘미리메터급 총돌 방지 레이더’ 기능을 구현했다. 또 여

러 예인선을 연결해 플랫폼을 한번에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중국은 50개의 대형 해양 플랫폼에 대한 ‘플로트 오버’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최대 능력은 3만 2,000톤, 총중량은 60만톤을 넘는다. 중국은 ‘플로트 오버’ 유형의 종류, 작업 난도, 기술 복잡성 등 면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간리 10-2 유전은 천진에서 약 245킬로미터 떨어진 발해 남부 해역에 위치하며 평균 수심이 약 20미터에 달한다. 이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해상에서 개발된 최대 규모의 암석 유전으로 확인된 원유 매장량은 1억 톤 이상에 달한다.

1, 2기로 나누어 진행되는 간리 10-2 유전 개발 프로젝트는 내년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 신화넷

오문, 글로벌 100 대 국제회의 개최 도시 재진입... 인적 왕래 확대

오문특별행정구가 글로벌 행사 개최 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출입경 인원도 덩달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문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100 대 국제회의 개최 도시에 재차 이름을 올렸다.

얼마전 국제컨벤션협회(ICCA)가 발표한 2024년 년례 시장 보고서에 따

르면 오문은 국제회의 개최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6위 상승한 14위에 올랐다. 세계적으로는 31위 상승한 76위를 기록하며 북경 및 도하와 공동 순위를 기록했다.

오문무역투자진흥국(IPIM)은 이러한 결과를 들어 오문이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목적지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힘입어 오문을 오가는 사람들도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오문특별행정구 치안경찰국은 지난 7일 오후 2시 기준 올해 오문의 출입경 인원이 1억명(연인원, 이하 동일)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8일 앞선 결과다.

오문통상구의 하루 평균 통관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63만

3,000명을 기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일 기준 올해 관감(关闸) 통상구에서만 5,000만 명 이상이 통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금(横琴) 통상구와 항주오(港澳) 대교 오문통상구는 각각 지난해보다 빠른 지난해 7일과 9일에 올해 통관 인원이 1,000만명을 초과했다. / 신화넷



해남 ‘황금잎’ 농민 소득 증대 지원

해남대엽차(海南大叶茶)는 해남성 중부 산악지대의 고유 차종으로 2024년 신종 동백나무속(山茶属) 식물로 확인되었다. 현재 오지산·보정·백사(白沙) 등 시·현(市县)은 차산업을 빈곤퇴치 공고화와 향촌진흥 추진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재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푸른 잎을 농민 정부의 ‘황금잎’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사진은 6월 8일, 해남성 오지산시(五指山市)와 보정(保亭)리족 민족자치현 접경지역에 위치한 해남농금정다원(海南农垦金鼎茶园)에서 로동자들이 차잎을 따고 있는 장면이다. / 신화넷

